

“지역 현안 해결” 국회 강행군

최경식 남원시장, 내년도 예산 확보·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위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에 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 대응에 적극 나서며, 4일부터 3일간 국회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의 이번 강행군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국회 예산심의를 시작됨과 동시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남원시의 입지 강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최 시장은 4일 전제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박수민 예결위원 등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단계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최경식 남원시장(사진 오른쪽)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제수 위원장(왼쪽)을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양부남 의원, 김대식 의원 등 영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필요성과 남원 입지 장점을 설명하며 남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하고, 11월 13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면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힘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경식 시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안도걸 의원, 김승수 의원, 이용선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위원들과 권영진 의원, 김석기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연수 면담을 추진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과 제2중앙경찰학

교 유치를 위한 협력을 동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원시의 국회 단계 주요 증액 건의 사업은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장비비 지원(40억원)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190억원)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15억원) 등이며, 남원시는 국회의 본격 예산심의를 시작됨에 따라 국회 상주반을 편성운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구 박희승 의원의 연대를 강화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정부의 긴급재정 기조와 세수 결손 등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관계된 분들을 1명이라도 더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인 남원시의 장점을 잘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해 반드시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방문의 해 홍보 나섰다

군, 부산진구청서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임실 주요 관광지·내달 열리는 산타축제 등 홍보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명품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외 관광객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자매결연지인 부산진구청 광장에서 열린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임실 주요 관광지 및 오는 12월 개최되는 산타축제 홍보 등 임실의 다채로운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치즈테마파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옥정호 뱃어섬 생태공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대외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군을 비롯한 5개

시군과 10개 생산단체가 함께한 행사로,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홍보 리플릿 배부와 기념품 증정 이벤트 실시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민 군수는 “내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콘텐츠 개발과 특별 프로그램 발굴 시행으로 임실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남원시, 두레사랑방 운영 재개

어르신 안전한 노년 생활 도모

남원시가 한과 등 동절기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을 마을공동체 협력을 통해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도록 하는 두레사랑방을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코로나 대응 기간을 제외하고 해마다 동절기에(1월~3월, 11월~12월) 5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경로당 27개소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2025년도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경로당은 오는 1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운영위원회 결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을 최종 선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튜버 썬양, ‘순창삼합’ 맛보러 왔다

특화음식 영상콘텐츠 촬영... 15일 썬양 ‘유튜브 채널’ 공개

순창군이 순창의 3대 특산품인 고추장, 간장, 된장(정국장)을 활용한 ‘순창삼합’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미술랭 1스타 유현수 셰프와 협업으로 탄생한 ‘순창삼합’은 고추장을 활용해 매콤달콤하게 조리한 장어구이, 잘 숙성된 간장의 감칠맛이 배어든 간장김치, 그리고 구수한 청국장 향이 어우러진 담백한 수육까지 순창의 3대 장으로 구성된 특화 음식이다.

군은 지난 4일 ‘순창삼합’의 독창성과 특별한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 썬양의 특별 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썬양은 순창을 직접 방문해 삼합의 매력적인 맛을 체험하고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면서, 전통 발효장맛을 현대적 미식으로 어떻게 재탄생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현재 순창삼합은 순창 지역에서 엄선된 4개의 대표 음식점(대궁, 녹원, 금은옥, 프란체)에서만 맛볼 수 있으며, 각 음식점은 한식 전문가 유현수 셰프의 레시피 교육과 세심한 컨설팅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군은 이미 지난해 썬양과의 협업을



통해 ‘순창 고추장 불고기’를 성공적으로 알린 바 있으며, 이번 순창삼합 홍보를 통해 한국 전통 발효 문화와 현대 미식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특화음식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콘텐츠를 통해 순창이 미식관광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촬영한 ‘순창삼합’ 영상은 오는 15일 저녁 9시, 썬양의 유튜브 채널에서 첫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순창군 공식 홈페이지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도 홍보 영상이 방영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방문

쌀 매입 상황 점검 등

임실군이 2024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비 매입을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가운데 심민 군수가 매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에 나섰다.

심 군수는 5일 임실 농협창고와 사선대 주차장에서 열린 2024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비 매입 현장을 방문, 예로서황을 청취하고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 품종은 일반벼(신동진, 안평쌀, 새청무), 가루쌀(바로미2) 등 4개 품종이다.

매입 물량은 공공비축미 2,429톤, 시장격리곡 782톤으로 지난해보다 898톤이 증가한 3,211톤이다.

5일 임실읍부터 매입을 시작하며, 매입 장소는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내 12개 읍면 22개 장소에서 매입한다.

매입한 미곡은 임실군 정부양곡관리창고에 분산해 비축할 예정이다.

군은 농가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타품종을 출하하면 향후 5년



지역 소식통

남원농업인단체협의회 10~11일 농업인 대잔치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상철)는 지역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평소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내외빈을 초청해 고마움을 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장터마당을 열어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오는 11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사랑의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농업인 대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농업인들의 축제가 아닌 남원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장터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할 계획이며, 농산물 장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남원 각지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이고 지역경제 및 지역회 활성화에 위해 판매금액의 약 30%정도를 남원시 랑상품권으로 환급 할인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공 급식지원 위수탁 계약 협약

남원시는 9월 26일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남원시는 지난 4월 남원시 원예산과장, 남원원에 농업 공공급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위수탁 계약 협약식’을 가졌다.

남원원에농협은 심의 결과 사업자의 적합성과 수행능력을 평가한 정량적 평가와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지역 먹거리 조달 체계, 사회적 기여를 평가한 정성적 평가 결과 위탁운영자로 선정됐으며, 남원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76개교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산 가공식품을 공급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지은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